

영암



2017 / No.130

하나님의 선물

새해가 됐다고, 어른들은
뭔가 새 결심을 해야 한단다
새해라고 꼭 그래야 하나?

2017년이었던 어제와
2018년이 된 오늘이
뭐가 다르다는 거지?

어제처럼 오늘도 새 해가 뜬다
하나님은 늘 새 날을 주신다
가만히 있어도 선물로 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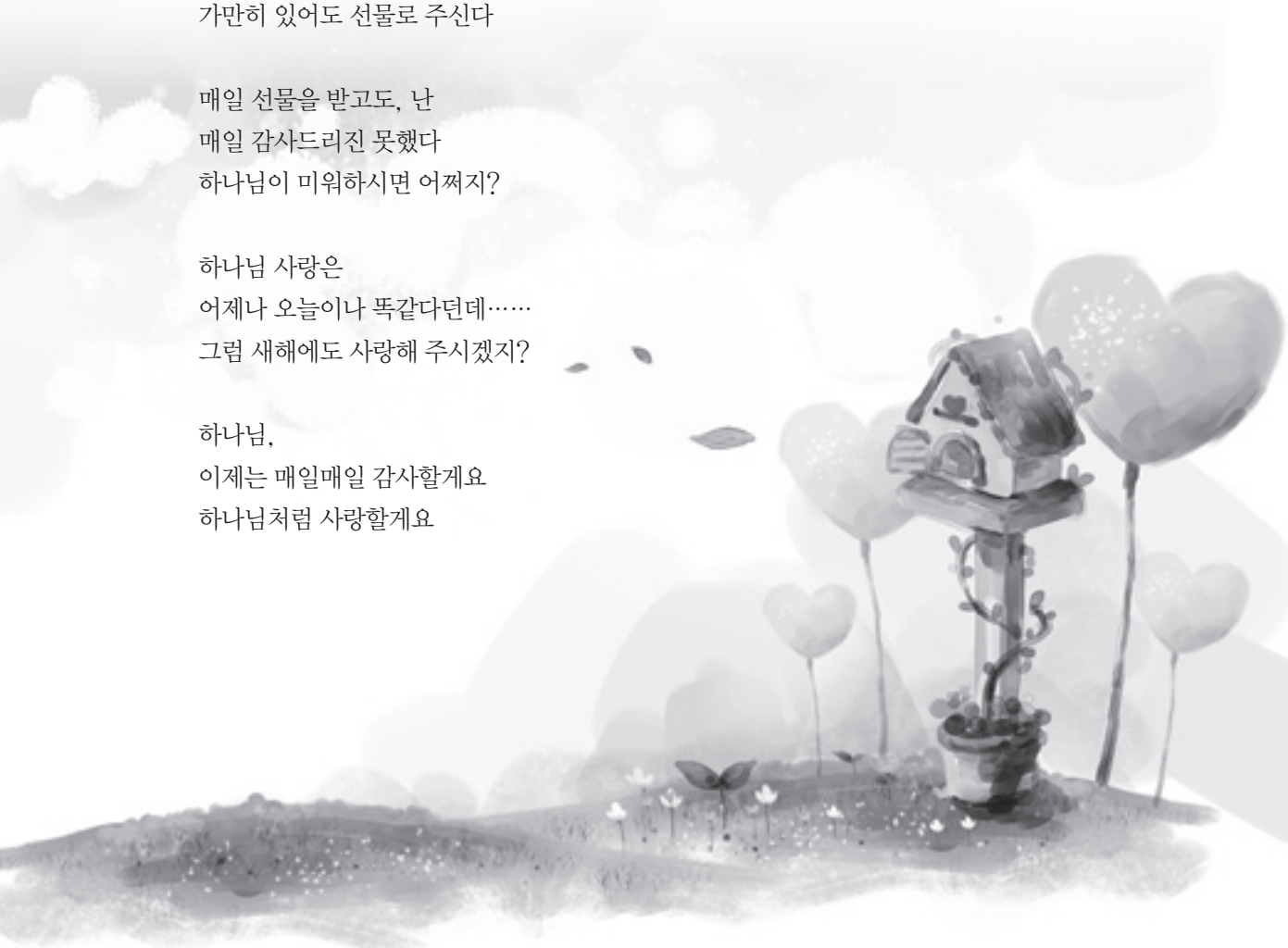
매일 선물을 받고도, 난
매일 감사드리진 못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어찌지?

하나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던데.....
그럼 새해에도 사랑해 주시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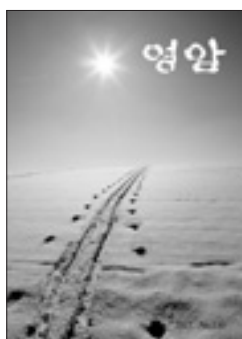
하나님,
이제는 매일매일 감사할게요
하나님처럼 사랑할게요



손지인(초등1)



02	성시	하나님의 선물 · 손지인(초등1)
04	말씀의 샘물	‘말씀을 함께 나누는 소망의 공동체를 이룹시다’ · 유상진 담임목사
06	은퇴소감	드디어 은퇴를 합니다 · 신운해 장로
08		감사하는 마음으로 · 문정엽 장로
09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 정근희 권사
10	임직소감	약속드립니다 · 조규완 장로
12		피택자 교육과정을 마무리하며 · 양승배 안수집사
14		충성된 일꾼 되게 하소서 · 임명자 권사
15	신임교역자	반갑습니다! 이재영 전도사 입니다 · 이재영 전도사(중등부)
16	선교편지	생명의 빛 · 강원희 선교사
18		캄보디아를 복음으로 · 신효현 장로
20	부흥사경회	은혜의 바다 · 김윤희 권사
22	화보	2017 영암교회는
24	아기학교 간증문	엄마도 신나는 아기학교 · 노승희 성도
26	부모교육 간증문	기도하는 엄마들 훈련을 마치고 · 김지인 집사
28	제자훈련-초등부	재밋는 동물퀴즈와 성경이야기 · 구예준(초등1부)
29		십계명과 이스라엘 백성 · 윤성민(초등2부)
30	예비지도자 간증문	기대하며 소망하며 · 안태연 집사
31	교사&학부모 바이블 아카데미	성경을 배우는 기쁨 · 윤은경 권사
32	자립화대상교회 방문수기	하반기 자립화대상교회 방문 · 염미경 집사
34	영화칼럼	어떤 크리스마스 영화를 볼 것인가? · 강진구 안수집사
36	찬송가 해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 김혜림 집사(소망교회)
37	영암소식	
38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는 소망의 공동체를 이룹시다’



유상진 담임목사

한 해를 마감하는 세밑 풍경은 여전히 어둡고 우울하지만 성탄의 계절, 주님의 오심을 경험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소망으로 가득찬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약속의 말씀을 하신 장면은 에덴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말씀입니다(창3:15). 또한 성경의 마지막 장면인 요한계시록에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계22:20) 약속하시며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재림의 소망을 주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악으로 절망과 죽음에 이르게 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소망의 말씀으로 가득차 있는 책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약속으로 보장하신 미래의 전망입니다. 제임스 패커는 소망과 낙관주의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낙관주의는 어두운 밤 길을 홀로 가며 무섭지 않은 척 휘파람을 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면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것을 미리 내다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믿음에 근거한 소망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 대하여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엡2:12)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원천은 자신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됩니다.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지 않은 미래로 불안해하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자아중심적 이기심에서 해방하며, 자신만을 위한 복을 넘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우주적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소망으로 확장됩니다. 소망, 이는 단순한 바람이 아닌 약속 아래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입니다.

소망이 생활 방식이 되게 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속사람이 생명력을 회복합니다. 힘을 잃은 사람이 다시 활력을 찾게 되고, 절망 중에 소망을 품게 되고, 죄에 눌렸던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행2:42).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였다(행6:7)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박해와 절망에도 교회가 든든케 된 이유입니다.

이처럼 소망으로 가득한 교회는 항상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여, 받은 말씀으로 서로의 삶을 나누기 시작할 때 가능합니다.

새해에는 말씀으로 함께 세워지는 교회를 꿈꾸며 모이기를 힘씁시다. 모일 때마다 말씀으로 삶을 나누며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합시다. 세상은 여전히 절망과 어둠으로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말씀으로 함께 모여 믿음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영암교회와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든든케 세워주실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다시 소망의 걸음을 시작합시다. **Y**



드디어 은퇴를 합니다.



신운해 장로

약 26년 전 1월에 제3대 담임목사님이셨던 임옥 목사님의 은퇴 및 원로목사 추대식이 본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왼쪽강단에 설교석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사회석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가운데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찬양대석은 저 뒤 2층에 있었고 당시 40대 중반이었던 저도 찬양대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스탠드마이크 앞에 서신 임옥목사님께서 하신 은퇴사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은퇴나 원로목사란 말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의 심정은 그 당시 임옥목사님 말씀과 너무도 똑 같습니다.

저 역시 은퇴라는 단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은퇴하는 우리들의 속은 안보여서 어떤지 모르지만 겉으로 보이는 그림은 아쉬운 대로 괜찮지 않습니까? 은퇴할 날이 가까워질수록 은퇴 후에는 무엇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답을 얻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있나 싶어 성경말씀 중 큰 영향력을 나타내었던 몇 분의 은퇴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출애굽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모세의 은퇴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바른생활 범생이로 살았던 사무엘,

삶과 죽음을 오가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왕.

지혜와 재물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왕의 은퇴사까지.

모두 다 인생의 황혼기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선포한 은퇴연설이지만 제사장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표한 사무엘 제사장 은퇴사의 핵심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헛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은퇴 후에도 당신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사무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퇴하는 우리의 할 일은 섬기는 교회와, 구석구석이 편하지 않은 우리나라와, 특히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에 미국에 있던 딸네 집에 갔을 때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던 손자가 저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할아버지, 결혼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것이지요?”

“물론이지.”

“그런데 왜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과 결혼해요?”

아마 “너는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 금방 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은퇴 후에 할 일 두 가지는 이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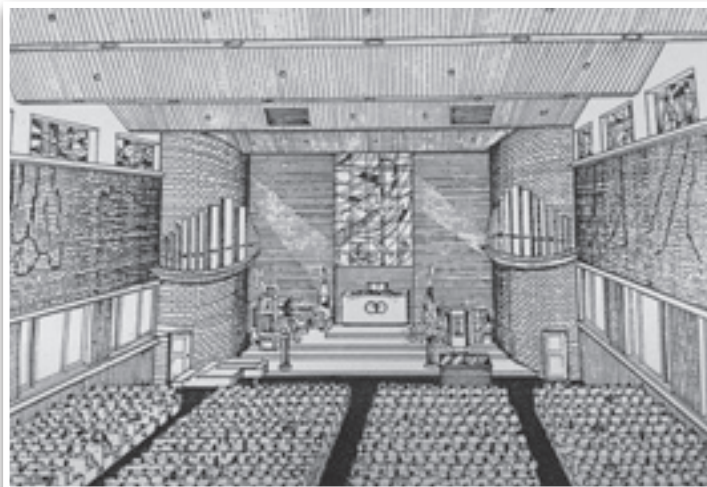
첫째. 이제 은퇴 후에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절대로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할 수 있는 대로, 형편에 닿는 대로 여러분을 위하여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퇴하는 오늘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갖가지 은혜로 늘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 갈 길 몰라 방황하며 귀찮게 굴던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믿음의 선배님들,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삶은 표정 한 번 짓지 않으시고 따라와 주신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들.

그 동안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Y



본당 전경 스케치 / 신운해 장로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문정엽 장로

제가 1983년 9월 1일 부터 영암교회에 출석하면서 2004년 11월 14일에 장로 임직을 받고 2017년도 말에 항존직 시무에서 정근희 권사와 함께 은퇴하는 것이니, 항존직분자로서 교회섬김이 각각 20년과 17년이 되는 것 같다.

그동안 받은 은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다. 돌아보면 교력이 90여년이 되어갈 두고 온 고향교회에서의 주일학교 시절을 회상하며 서울이라는 타향에서 정착할 교회를 택하는 일은 정말 용이하지 않았다.

사실 거주지를 옮길 때 마다 주변교회들을 찾아가고 해매는 등 방황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방황을 끝내고 35여년전에 영암교회에 정착할 수 있었음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놀라운 은혜다.

영암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다.

교회라는 조직에서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 있어야 할 것들이 균형을 잡고 제 자리에 있고, 구성원들이 각자의 할 바를 다하여 서로 사랑하고 돕고 의지함으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행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온 세상에 선행을 베푸는 순전하고 온전한 모습이 아닐까 싶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아름다운 교회라는 호칭은 영암교회에 대한 합당한 별칭이라 생각한다. 또한 세상의 많은 교회들도 영암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칭송을 한다. 교회의 설립의 뜻이 숭고하고, 교회를 섬겨 오신 목회자님들의 섬김과 헌신이 거룩하며, 성도들의 신앙의 깊이와 역량과 품격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내려주신 은총에 감사를 드릴 일이다.

나의 기도이며 노래이기도 한 주님의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롬12:11)의 구절을 새기고 음미하며 조용히 돌이키면 주님께 아무 공로 없이 그저 항공할 뿐인데, 모든 허물 다 품으시고 은혜로운 은퇴예식을 베풀어 주신 당회장님과 당회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교우님들의 사랑에 감사와 경의를 드린다. **Y**

2017.12.10 (주일) 문정엽 장로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정근희 권사

12월 10일 은퇴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교회를 가려는데 함박눈이 하얗게 쌓여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처럼 제가 은퇴식까지 건강할 수 있었음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인도하심입니다.

어렸을 적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언제나 교회에 가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겼고, 선생님들의 말씀과 친구들과의 만남이 즐거웠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결혼 후, 화천에서 군인가족으로 생활하는 동안, 교회에 나가는 것을 쉬고 있을 때는 허전함과 허탈한 마음이 컸습니다. 서울로 거처가 옮겨진 후, 삼익아파트에서 성숙한 믿음의 권사님들을 만났고, 모여서 성경읽기를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영동구역원들의 가정과 함께 구역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면서 영암교회에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고, 좋은 분들과의 만남은 우리 가정의 축복이었습니다.

권사 임직을 받고 맡은 사역들을 열심히 했지만, 이 모든 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인도였습니다.

권사로서 기도하기를 열심히 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면서, 더 많은 사랑과 배려와 섬김도 부족했던 저를,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구역장으로 보문 1,2구역원들을 섬길 때는 그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며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웠습니다.

서로 사랑할 줄 아는 귀한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은퇴하는 이 시점이 고요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영성을 키워가는 믿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과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랑과 섬김과 배려가 넘치는 영암교회에 속해있는 것이 참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영암의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Y

2017.12.10. 정근희 권사

약속드립니다



조규완 장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전 4:2)

이 말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를 한번 더 돌아다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 하나에도 최선을 다해 왔는지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충성을 다해 왔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생각 해봐도 주님 앞에 이렇다 하게 내놓을 것들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로라는 어려운 직분을 맡겨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 아닌 걱정을 하다 보니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내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정말 많이 부족하고 미흡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 일을 위해 조금이라도 내가 쓸모 있는 구석이 있으니 그 보잘 것 없는 나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기 위해 기회를 주셨다 생각하니 부끄럽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그저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사명과 달란트를 어떻게 하면 땅에 그저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후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그 기뻐하시는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기대감을 또한 이 시간 품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다음과 같은 약속을 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늘 깨어 있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교회와 교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섬기는 자세로 부지런히 봉사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여 서로 화목하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목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한결 같은 마음으로 항상 공경하고 순종하며 치리에 복종하면서 목회사역의 협력자로서 하나님 일을 해 나가는데 있어 철저한 디딤돌과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사명과 사역의 관계에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어떠한 사역이 주어지든지 기도로 준비하면서 늘 부지런한 마음으로 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솔선수범하며 남편으로써, 아버지로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정을 올바르게 세우고 부모님과 형제간의 우애를 더욱 돈독히 하여 주님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을 쓰면서 다시 읽어봐도 정말 과욕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킬 수 없는 허황된 약속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수없이 했었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이라도 크게 하고 시작해야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지켜 나가려고 애를 쓰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이렇게 서원을 하였습니다. 100미터 달리기를 준비할 때와 마라톤을 준비할 때는 그 계획부터가 다를 수 밖에 없고 스타트부터 마음가짐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단지 두려운 것은 이와 같은 초심을 언젠가 잃어버리지나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점차 나이 들어가면서 대접받고 싶고, 상석에 앉고 싶고, 남을 시키고 싶고, 간섭하고 싶고 이러지 않을까 지레 염려를 해보게 되는거지요.

짧고 서툴기 그지없는 소회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이 시간도 기도를 드립니다. 임직 시, 서약한 초심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Y



피택자 교육과정을 마무리하며



양승배 안수집사

신앙인으로서의 제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기에 작년 말에 안수집사로 피택 되었을 때 제 자신이 합당한 사람인가를 자문해 보며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성경의 지식, 영성, 기도의 분량 등 경건 생활, 교회에서의 봉사 등 여러 부분에서 안수집사로서 직분을 맡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피택자 교육과정을 통해 조금이라도 준비된 자로 서기를 소망했으므로 교육과정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갖고 마음의 준비를 하며 교육에 임했습니다.

3월 초부터 지난 10월 중순까지 7개월 남짓의 피택자 정기교육이 마무리되었는데 금번에 소감문을 준비하며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일정에 따라 정해진 프로그램으로 주일 찬양예배 이후에 담임목사님과 부목사님 들로부터 기본교재를 통해 교육을 받고 과제물로서 신앙서적인 3권의 필독서를 읽은 후에 독후감 제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모원탐방 그리고 서울북노회 피택자교육 및 당회고시 등의 과정을 거치며 교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절기에는 한동안 방학기간도 있었지만 교육 전과정을 통해 경건생활점검표를 준비하며 줄곧 일정부분의 신앙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며 생활했습니다.

평소에 신앙서적을 자주 접한 편은 아니었는데 금번에 신앙생활의 기본자세를 가다듬는 내용 등 이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두루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미흡한 내 삶의 실체를 영성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으로 조금씩 채워가는 노력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해야 됨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영혼을 세우는 관계의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함을 묵상하고 신앙인으로서 삶으로 조금씩 채워가며 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마음으로 다지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6월 말경에 조원님들과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모원을 탐방한 것도 각별한 경험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모두 오래 전에 세상을 떠나셨지만 영적으로 척박했던 이 땅에 오직 헌신과 사랑으로 복음만을 위해 힘썼던 그분들의 수고와 순교는 결코 헛되지 않았고, 그분들의 고귀한 정신이 남아서 풍성한 복음의 씨앗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매주일 경건생활점검표를 준비하며 미진함이 많은 가운데 주기적인 묵상시간, 새벽기도 등 생활전반을 신앙인으로서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교육계획 내역중의 하나인 모든 공동예배 참석사항 중 수요일예배와 금요일기도회는 거의 참석하지 못했고 전도책임 등 지키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던 것은 아직까지도 적지 않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고 앞으로 하나하나 채워갈 신앙생활의 숙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피택자 교육과정을 통해서 모자란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많이 가다듬고 있었는데... 마무리시점에 교육과정을 돌아보며 목표했던 부분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고, 여전히 부족함뿐인 제 모습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여전하였지만... 임직자기도회에서 기도로 준비한 헌신서약문에서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 앞에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노라고 마음을 다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은 자로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따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회와 교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본분과 사명을 잊지 않고 교회가 하나되는 일에 힘쓰고 특별히 화평하게 하는 작은 밑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종들의 목회활동에 항상 기도로 함께하며 동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명과 사역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영암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어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함께하며 특별히 저희 교회가 열방을 향한 선교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주일학교, 청년공동체 교육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귀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의 선한 뜻을 헤아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피택자 교육과정과 임직자기도회의 헌신서약문을 준비하며 갖게 되는 저의 조그만 결단이 미흡한 임직자로서의 새로운 출발선 상에서 다짐에 머물지 않고 실현되는 언약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자람이 많은 저를 위해 묵묵히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때로 용납해 주시고 사랑으로 지켜봐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 드리며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임직자로서 훈련 받게 하시고 지도해 주신 담임목사님과 부목사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특별히 피택자 교육과정으로 인도하셔서 신앙인으로서 부족한 삶을 점검하고 임직자로서 새로이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 드립니다. Y

충성된 일꾼 되게 하소서



임명자 권사

권사 임직 훈련을 받으면서 지나온 나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산부평교회에서 18세부터 신앙 생활을 하게 되었고 1980년도에 결혼을 하면서 온천제일교회를 다녔습니다. 1992년도에 부산에서 서울 안암동으로 이사를 와 영암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과 진리 위에 굳게 선 교회들로 인도하셨고, 훌륭하신 목회자님들과 성도님 들을 만나게 하신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유상진 담임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을 통하여 주일마다, 새벽 제단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었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권사로 피택 받아 훈련 받는 과정 가운데 말씀통독, 말씀묵상, 개인기도, 독후감 쓰기, 개인 경건의 훈련이 바쁘기도 했지만 유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의 권사임직 훈련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맘으로 몸 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야겠다는 다짐도 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훈련의 과정으로 독후감을 쓰던 중 “상실”에 대한 내용이 깊은 감명으로 다가오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인생의 슬픔을 한 단어로 압축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상실이다. 우리는 모든 상실한 것들 때문에 슬프다. －

상실을 경험한 저는 상실로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부정하지 말고 정직하게 끌어안을 때 고통스런 진실에 도달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미리 경험하셨기에 고통스런 상실의 슬픔조차도 진실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상실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심을 조금씩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전3:4)

나의 삶을 슬픔에서 기쁨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신실하신 주님! 위로자 되시며, 나의 반석이시며,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직을 받으며 계속 잔잔한 울림으로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함께 임직훈련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열정을 다하여 훈련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영암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가신다는 믿음이 생기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Y

반갑습니다! 이재영 전도사입니다



이재영 전도사
중등부

안녕하세요, 이번 12월 24일부터 영암교회에 부임하게 된 이재영 전도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영암교회로 부임하게 되면서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 먼저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만나 뵈게 될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31세의 건장한 남자입니다. 현재 사랑하는 아내와 딸 한 명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강동대학교 실용음악학과 전임교수로 일하고 있고, 헤리티지라는 가스펠 사역팀에서 피아노 연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딸은 현재 31개월이 되었고 이름은 이하울입니다. 언제나 저와 아내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착하고 예쁜 딸 하울이로 인해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따라, 모태 신앙으로 성장했고, 청소년 시절에는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결혼할 시기에 수원으로 거주지를 옮기시어, 현재 수원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밤마다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는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볼 때면, 저는 사역자임에도 도전을 받게 됩니다.

저는 대학교 때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며 지낸지 2년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겠다고 서원하게 되었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학부에서 예술경영 전공으로 학업을 이어가다가 신학교로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졸업하여 현재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

며, 전도사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에서 봉사하게 된 것은 강남에 있는 축복교회였습니다. 대학생 때 은혜를 경험하여 감사한 마음에 찬양인도, 음향봉사, 중, 고등부 교사활동 등을 하며 행복한 대학생 시절을 보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된 후로는 불광동에 있는 평복노회 소속 연신교회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연신교회에서 소년부 교육 전도사로 2년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영암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년부터 영암교회 중등부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믿음의 다음세대를 세워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업, 진로, 관계 등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부족하지만 진심으로 다가가는 신앙적인 멘토가 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함께 소통하며, 서로의 삶을 알아가고, 삶을 나누는 사역자가 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들도 모두 좋은 기억으로 가득하지만, 이 영암교회에서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편안함과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 담임목사님을 뵈었을 때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나눠 주신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대해주시는 부교역자 분들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기대해주시는 그 마음에 부응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전도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영암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담당하게 될 중등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Y

생명의 빛



강원희 선교사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1:5)

우리 사는 세상에는 햇빛, 달빛, 여러 가지 빛이 있고 밝은 전등불이 있습니다. 이성의 빛으로는 풍성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세상 어두움

에 비쳤을 때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에게 참 생명의 빛을 주시려고 하지만, 인간편에서는 그 생명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강력하게 비쳤고, 도 계속 비치고 있으나 아직도 이 생명의 빛을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는 현상이 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말씀에 대한 자세 역시 새로워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간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인간이 쌓은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최고로 알고 어려서부터 이 지식을 열심히 배우며 그 속에서 선악을 배우며, 생각하는 법을 배우며, 가치관을 배우며, 그 안에서 계획을 세우며, 약속하며 희망을 가지고 살며 자아가 형성되어 갑니다. 그런 고로 그 자아의 테두리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한된 능력을 가진 인간이 지극히 제한된 시간, 공간과 자원 속에서 이루어놓은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5월 에디오피아 남쪽 ‘야벨로’ 라는 지역에 이동 진료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8개월 여 동안 비가 오지 않아 소들이 물이 없어서 들에 죽은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비는 안 오고 너무 더워서 큰 어려움을 겪었고, 강과 호수의 물이 마르고 농사에 큰 위협이 되었고, 마시는 물도 걱정할 형편에 이

르렀습니다. 그런데 애타게 기다리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인명, 재산피해가 심했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자기 존재를 위해서 얼마나 스스로가 기여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수명은 오늘날 의학의 발달로 100여년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우주 속에 지극히 제한된 시간입니다. 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경험을, 지식을 이어받아 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공간도 그 거처가 지구라는 심히 제한된 공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절대 필요한 공기, 물, 곡물, 육류, 모든 삶의 절대 필요한 요건들은 많지만 사람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나 감사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두움의 세계입니다! 그 어두움을 자각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전능하신 분의 품, 그 능력, 그 섭리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 분과의 관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심령! 우리의 생각, 마음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약속들, 계획들, 가치관들, 희망들 등등... 세상의 것들을 우리 마음에서 제거해버려야 깨끗한 심령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이 체험하고 배웠다는 것이 많은 경우에 우리를 이 어두움의 세계에 가두어 두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봅니다. 놀라운 일이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2:43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 유혹하는 일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실로 험악한 무서운 세

상입니다. 먹고 마시고 흔들고 즐기는 세상의 강한 유혹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어두움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유혹들을 이기고 어두움의 두터운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으니 그것은 오직 “생명의 빛” 뿐입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큐티, 기도회, 성경공부, 설교들, 부흥회들, 많은 유인물, 책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배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머리 속에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겸손과 냉철함과 관용이 필요합니다. 이는 바람직한 믿음의 삶을 위해 매우 필요, 중요하지만 리더들이 갖추어야 할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아울러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일을 열심히 성심껏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생명의 빛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므로 깨달으며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부인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앞에 인간의 한계 속에 있는 어두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이 인도하시는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함은 성령은 분명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생명의 빛 가운데 사는 삶인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예수님과 연합,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결국, 그것도 결국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성! 그 암흑의 죽음의 한계성을 분명히 볼 수 있고 깨닫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며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부족함, 죄악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받으사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훈련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 천국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를 넘은 참 생명의 빛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 안에 날마다 성숙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Y**

*강원희 선교사님께서서는 1982년 한국월드컵선교회와 영락교회 파송으로 네팔에 첫 번째로 가셨습니다. 처음 1년 반가량은 영국인 의사들이 네팔에 세운 INF(International Nepal Fellowship) 소속 의료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언어 공부와 진료 봉사를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네팔 정부 산하 병원에서 2년간 더 사역 하셨습니다. 1차 네팔 선교를 끝낸 다음에는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에서 각각 4년씩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 네팔에 두 번째로 가서 3년 반 동안 일하시다가, 1999년에 한국으로 돌아와 안동성소병원 원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당초 의사가 많은 국내에서 사역하기를 원치 않았으나, 외국인 선교사가 세운 병원을 우리 손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했습니다. 2년여 만에 병원의 경영이 안정되고 증축까지 결정될 무렵, 선교사님은 미련 없이 종합병원 원장 자리를 내려놓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 떠났습니다. 7년간의 에티오피아 사역을 마치고 2009년 2월에 한국으로 돌아오니 안식년도 없이 살아오는 동안 쌓인 피로가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께서서는 2010년 가을, 세 번째 네팔행에 나서신 이후 2017년 올해 모든 선교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한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캄보디아를 복음으로



신효현 장로

저는 2015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자동차로 5시간 거리에 있는 시하누크빌에 있는 라이프대학교에서 국제경제법을 강의하고 귀국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 내외를 전문인선교사로 파송해 주시고 후원하여 주

신 유상진목사님과 교우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캄보디아는 인구가 1,5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중 95%가 불교를 믿는 불교 국가입니다. 불교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힌두교와 토속신앙과 샤머니즘이 한데 어울린 이상한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문밖에 탑 모양을 한 제단을 설치하고 그곳에 쌀과 음식, 과일 등을 진설하고 향을 피우며 외출할 때는 그 앞에서 합장기도하고 또 귀가하여서도 집에 들어가기 전에 또다시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약 30만 명에 불과하여 인구의 약 2%정도 됩니다. 주변에 있는 태국,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에 비하면 국민 소득이 1,100불에 불과한 가장 후진적이고 가난한 나라입니다.

저는 한국선교사가 설립한 기독교 종합대학교인 라이프대학교의 초청을 받아 “국제경제법”과 “통상 분규 사례연구” 과목을 가르쳤으며 이명희권사는 한국어과에서 “한국어의 이해”과목을 가르쳤습니다. 라이프대학교는 한국선교사인 구견희목사가 11년 전에 선교 목적으로 설립한 대학교로서 교육을 통하여 캄보디아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현재 6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교육을 받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

온 교수들은 모두 캄보디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보수를 받지 않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대학교는 기독교대학으로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나 강의시간이나 기타 공개적으로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거나 전도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어 학교 측에서는 각 교수에게 10명이내의 학생들을 담당하여 토요일 같은 주말에 이들과 다과를 나눈다든지 점심식사를 같이 하면서 개인상담, 신앙 상담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맡겨진 7명의 학생들에게 요한복음을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는데 저 자신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교지에 가보면 그곳에서 받는 특별한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불교국가인 캄보디아의 미래를 젊어질 대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이들이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또한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지도자로서 장차 캄보디아를 기독교 국가로 바꾸는데 앞장설 것을 상상하면 뜨거운 감사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온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들이 먼저 젊은이들을 모아 배재학당, 이화학당 같은 학교를 세워 선진학문과 함께 기독교 복음을 가르친 이유를 알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주님께서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셨습니다.

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사명은 죄와 거짓과 사탄이 난무하는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라고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원근각처에 있는, 특히 열악한 생활환경을 무릅쓰고 먼 후진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와 물심양면의 후원이 모두 선교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까. 선교는 기도가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 하여야 하겠습니까.

저는 원래 라이프대학교에 갈 때 2년 정도 사역하고 돌아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년에도 강의 시간을 줄이더라도 계속 라이프대학교에서 교육선교를 계속하기를 바라셨으며 아울러 이미 개척이 되었으나 목회자가 없고, 교인이 없고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개척교회를 맡아서 시골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라이프대학교에서 개척하였으나 담임 목회자가 없어 신학과 4학년 학생이 주일설교등 사역하고 있는 “오참나교회”를 재정적으로 도우면서 주일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로 전혀 예상치 못하였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저희들은 주님께서 저희들을 계속 사용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기뻐하며 감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부터 오참나교회의 담임하고 있는 신학과 학생과 보조교사의 매월 사례비와 교회부설기관인 오참나유치원 교사의 사례비와 운영경비를 부담하여 현재 오참나교회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유치원은 아이들 때문에 주변공장에서 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줌으로서 지역사회의 복음화라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과 같이 일할 동역자도 보내주셨는데 장지우장로님과 안혜원권사님이 지난 7월

초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현지 실정을 보신 후 함께 오참나교회와 유치원사역을 하시기로 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오참나교회는 주일 예배시 캄보디아인들이 어른은 10명 정도 참석하지만 어린이 예배에는 5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영암교회의 표어도 “복음으로 다음세대를 세우겠습니다!”인데 40년 전에 폴뎡 공산정권이 300만 명가량의 지식인과 지도자들을 학살한 캄보디아에서는 다음세대를 복음으로 세우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매주일 교회를 찾아오는 50여명의 어린이들의 순진무구한 얼굴을 보면서 이들이 우리의 꿈나무로구나, 이들이 장차 캄보디아를 복음으로 다시 세울 인재들이구나라고 생각되어 가슴 뜨거운 감격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참나교회는 영암교회에 속한 우리들의 해외선교의 터전이며 활동 무대가 캄보디아로 연장되고 확장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매년 라이프대학교에서 한 학기정도 강의하며 동시에 오참나교회에 가서 사역자들과 그곳 교우들과 어린이들을 만나 보려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께서도 오참나교회와 유치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후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한 차례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장부터는 우리가 계속하여 써 내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지상명령이며 우리 크리스천들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Y**



은혜의 바다



김윤희 권사

‘회의에서 신뢰로’? ‘모새골’ 2017년 사경회를 앞두고 보게 된 두 문장이 알 듯 모를 듯. 의문이 회의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골짜기에서 오신 임영수 목사님께선 어떤 양식을 어떻게 우리에게 먹여주실까? 기대와 설렘으로 맞은 사경회였다. 11월 8일 첫날 가브리엘 찬양대의 ‘천국 잔치’ 찬양으로 문을 연 사경회는 아주 조용하고 잔잔하며 깊이 있는 잔치로 시간이 지날수록 주시는 말씀이 깊은 감동과 반성의 기회로 우리 곁에 다가 오며 나도 모르게 은혜의 바다에 빠지게 되었다.

이리 저리 흠어지고 달아나는 어린 양떼들을 불러 모아 맛난 먹이를 주시며 사랑으로 다독여 주시는 목자처럼 여러 갈래의 세상 유혹에 취해있던 우리들을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목마른 자에겐 생수를, 배고픈 자에겐 양식을 먹여 주시듯 부드럽고도 조용히 차근차근 타이르듯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의 모습에서 우린 예수님의 모습을 뵈는 듯 했다. 바닷가, 광야, 성전 어디에서든지 많은 우리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주시던 예수님의 모습 또한 이렇게 인자하시고 은혜로웠을 것이다. 내가 어렸을 적 팔베개 해주시며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할아버님의 모습도 떠오르게 하셨다.

첫째 날, 마가복음 4장 1절~12절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 말씀을 주셨다. 먼저 이번 집회는 내가 큰 은혜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내려놓고 이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겉만 단단하고 속이 텅 빈 박이 아니고 알알이 속이 꽉 찬 석류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함을 당부하셨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초대 받았고 이를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옥토에 뿌려진 씨가 되어 하나님의 환영을 받으며 동행해 주시고 사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길들여 주신다는 확신을 갖도록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셨다. 어느 유명 가수의 ‘바람’이라는 노래의 한 구절을 개사하시어 말씀하실 땐 직접 그 노래를 불러 주시길 잔뜩 기대했는데... 세상의 유혹, 회의, 고통, 역경을 이겨내며 치유함을 받고 평강과 자유를 얻으며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경험케 되기를 기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씩 익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르고 순종하며 이웃과 화해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 반석이 되시고 피할 바위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늘 똑같은 모습으로 내 곁에 계시면서 하나님 의도대로 우리를 길들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신다는 희망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주야로 기뻐하며 악인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시냇가의 늘 푸른 나무처럼 생명의 운동을 통하여 나도 즐겁고 남도 행복하게 해주는 복 있는 자가 되라 하셨으며 이런 거룩한 삶을 사신 마더 테레사님은 세상에서 가장 복 있고 행복한 분이라고 하셨다.

둘째 날 저녁 집회, 시편 23편의 말씀은 나에게 가장 깊은 감동을 주셨다. 뜻도 잘 모를 어릴 적부터 달달 외우고 홀로 되신 어머니가 울적해 하시는 모습을 보시면 노래로 불러드렸던 익숙한 말씀을 목사님께서 세세히 그리고 다정다감하신 목소리로 말씀 주시니 큰 감동이 되었고 순간 숙연함으로 가슴이 뭉클하였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이 각박한 세상에서 결핍된 부분들을 채워주시며 모든 염려에서의 해방과 치유, 그리고 기쁨과 만족, 감사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깨닫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함을 기뻐하며 영성이 깨어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해야 한다. 고난과 좌절, 실패에 빠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몸부림 칠 때도, 원수 앞에 노출되어 있을 때에도 그 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내 옆에 계셔서 지켜주시고 나의 부족을 채워주시며 동행해 주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잘 했을 때나 잘못했을 때나 여전히 나를 받아 주시는 나의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붙들며 간절히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회의에서 벗어나 신뢰로 나아가는 길임을 깨닫게 되었다.

마지막 집회, 마가복음 10장 42~45절 말씀, ‘섬김의 도’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자고 하셨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섬김이 타의에 의하여 상전을 섬기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섬김이 되었고 예수님께서서는 그 본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섬김의 두 가지 대표적인 상징은 타올과 십자가라고 말씀하셨다.

타올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섬김의 상징이고, 십자가는 흉악범들의 형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심의 상징인 것이다. 우리의 섬김의 장소는 하나님께 초대되어 동행하며 길들여지는 그 곳이 곧 섬김의 장소가 되며 거기에 섬김의 대상이 있다고 하셨다.

섬김의 자리에서는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말고 교만과 허세를 버리고 세속적인 인간의 칭찬이나 박수 갈채, 실적에 연연하지 말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해야 함을 강조하셨다. 겸손하고도 은밀한 가운데 주어진 역할에 충성을 다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정직하게 꾸준히 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꼭 합당한 보상을 주실 것이다.

모든 시련과 시험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자기의 의를 벗어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언제나 솔직하게 기도하고, 섬김의 자리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자세를 가지고 성령으로 길들여짐을 받으면서 점차 익어가야 한다는 말씀으로 귀한 시간을 마무리 해 주셨다.

우리 영암의 성도들에게 진한 감동과 자기를 돌아보는 귀중한 기회를 주신 목사님께 엎드려 감사 드립니다. 항상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Y

2017 영암교회는





엄마도 신나는 아기학교



노승희 성도

매주 수요일 저녁이 되면 가슴이 두근두근 기분 좋은 설렘!

내일은 사랑하는 딸 예진이와 함께 하는 아기학교에 가는 날이기 때문이다.

친구들은 많이 올까? 어떤 수업을 할까? 또 뭘 입고 가지? 등등 소풍가기 전 날 아이처럼 설레인다. 우리 부부는 늦은 나이의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무도 큰 축복의 선물을 주셨다.

아이를 갖기 전에도 임신한 후에도 교회에 갈 때마다 주차장과 3층 로고스웨이에 걸려있는 “영암 00기 아기학교”라는 현수막에 늘 눈길이 갔었다. 아기학교 수업에 나는 언제쯤 갈 수 있을까..... 정말 간절하게 가고 싶었던 내 마음을 하나님은 아실거라 믿는다.

그런데 드디어!! 2017년 14기 아기학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닌 조리원 동기들도 함께 하는 아기학교여서 더욱 더 신나고 감사했다.

예진이를 낳고 조리원에서 그 엄마친구들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기도했는데... 아마도 나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눈치 채셨나 보다. 예진이는 친구 하연이와 강민이와 함께 첫 번째 아기학교를 함께 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아기학교 첫째 날! 교회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반갑게 맞아 주시며 환하게 웃으시



던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지금도 그 아름다운 모습이 눈에 선하다. 아기학교 22명의 친구들 중 가장 아기였던 예진이와 조리원 친구들이었지만, 큰 어려움 없이 아기학교에 적응하고 예진이는 더불어 유아부도 함께 출석하게 되었다.

아기학교 4주차, 피노 파밀리아의 소풍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솔직히 말해서 아기랑 집에서 단 둘이 갇혀 지내는(??) 오랜 육아에 슬슬 피가 나고 조금은 지쳐 있던 나에게 소풍은 말만 들어도 좋았다. 여럿이 함께여서 좋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날씨와 자연 속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맘껏 뛰놀고 웃고, 정말 비타민 같은 하루였다. 어른 키의 10배는 되어 보이는 커다란 피노키오인형과 피노키오의 여자 친구 피노키아의 스토리가 있는 피노 파밀리아에서의 예진이의 첫 번째 소풍은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다. 웬지 아기들보다 엄마들이 더 즐거워 보이니까 지 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렇듯 매주 다양한 말씀과 놀이와 활동으로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즐겁게 해주시고 고사리 같은 손과 입술로 미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10주차 아기학교 한 학기의 여행을 함께 한 어머님들과 아기들 그리고 끝까지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선생님들과 전도사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2018년 봄 학기도 기대해도 될까요? Y



기도하는 엄마들 훈련을 마치고



김지인 집사
(정이안엄마, 장순영
권사 딸)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 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 지어다. (예레미아애가 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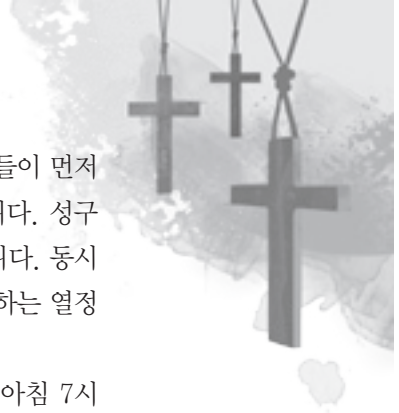
결혼 16년 만에 기적같이 주신 딸아이를 기르는 지난 2년은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소원해졌던 시기였습니다. 유아부실에서 드리는 소란스러운 예배와 고단한 육아는 나태한 기도생활을 합리화시켰습니다. 타락한 세상의 무시무시한 사건 사고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더 민감하게 와 닿았습니다. 기도하기보다는 염려와 근심만 늘어갔습니다.

올 봄과 가을에 영암교회 아기학교를 다니면서 아이가 서툰 입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는 부모가 되어야겠다고 다짐은 했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훈련에 대한 알리를 받았을 때도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핑계로 살며시 마음을 접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귀한 봉사자 분들 덕에 아이를 유아부실에 맡기고 훈련에 참석할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내 마음을 아시면 됐지’ 하면서 교회 안에서 관계 맺거나 성경공부 등에 소극적이었던 저에게 기도하는 엄마들 프로그램은 다소 버거운 훈련이었습니다. 다른 엄마들과 소리 내어 혹은 단체 대화방에서 기도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훈련 내내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하고 소심한 저에게 용기와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이고 밀도 있는 훈련은 느슨했던 저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단단하게 조이게 해주었습니다.

기도하는 엄마들의 목적은 단지 엄마들이 모여 내 아이들을 위한 ‘하나님 이것 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성경말씀에 기초한 기도로 자녀를 몸소 지키고 더 나아가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성경적 가치와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그들을 지도할 수 있게 중보 하는 것입니다. 기도 방법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두 번째 단계 나의 죄를 고백하고, 세 번째 단계 응답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며, 마지막 4번째 단계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4단계 기도방법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게 하는 좋은 훈련이었습니다. 특히 저에게는 중보기도 시작을 말씀에 기초한 성구기도로 하는 것이 매우 은혜로웠습니다. 평소 제가 경계해왔던 구하기만



하는 기도에서 벗어나 먼저 성경 말씀에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넣어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게 해주도록 기도하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성구 확장기도 훈련은 더 깊이 말씀을 깨닫고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동시에 저의 성경적 무지함을 자극해 하나님에 대해 더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열정을 불태우게 해주었습니다.

비슷한 연령의 자녀들을 키우는 엄마들로 짜인 조별 카톡방에서는 아침 7시 반에 각 주에 훈련받았던 1단계 찬양 기도, 3단계 감사기도, 4단계 중보기도의 성구 확장기도 및 중보기도를 훈련하게 해주었습니다. 육아를 하면서 쉽지 않은 스케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시험에 들지 않게, 그로 인해 남편의 아침 식사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그것 또한 기도하면서 제 생활을 미리미리 준비하게 해주었습니다.

훈련 마지막 날, 50가지 우리 아이에 대한 감사 내용을 적으면서는 평소 당연하다 여겼던 아주 세심한 것까지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다른 어머니들의 감사를 들으면서 같이 공감하고 눈물 흘렸던 장면이 추억으로 남습니다.

제가 좀 꾸물대면 “엄마 교회 가자” 하며 재촉하던 27개월 제 딸을 생각하니 또 감사한 맘으로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 자녀의 삶에 관여할 것을 알려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를 오직 기도의 옷을 입혀 하나님께 맡기고 저에게는 평안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 아이를 양육하고 친구, 학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고 이러한 기도가 세상에 굳건한 네트워크로 촘촘히 박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이 기도 훈련을 실천해서 더 많은 엄마들과 교류하면서 세상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기도하는 여인이 되길 다짐해 봅니다. **Y**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19-20)

재밋는 동물퀴즈와 성경이야기



구예준
(초등 1부)

내가 제자훈련을 할 때 가장 좋았던 것은 동물퀴즈였다.

예를 들면 “바다에 거대하고 수염이 있는 동물은?” 하고 전도사님이 질문을 하면 “흰수염 고래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나는 종종 잘 맞추었는데 그때마다 전도사님이 잘했다고 칭찬해주셨다. 성경에 대한 퀴즈는 시온이가 제일 잘 맞췄다. 그 외에도 성경 말씀도 듣고,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 재밋있었다.

그리고 나서 편의점에 간식을 사러 갈 때랑 롯데리아에 갈 때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게 재밋있었다. 간식 중에서는 컵라면이 제일 맛있었다.

이제 이번 제자훈련이 끝나서 너무 아쉬웠는데 다음번 제자 훈련 시간에는 다른 친구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고, 빨리 다음 제자 훈련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Y



십계명과 이스라엘 백성



윤성민
(초등 2부)

내가 제자반에서 공부한 것은 십계명과 주기도문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십계명이 매우 인상 깊게 남았다. 나는 십계명이 생활 어디에든 쓰인다는 점이 신기했다.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을 ‘십계명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지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고 십계명은 돌에 직접 써주신 법이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너 탈출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는 십계명을 들고 내려갔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했고 계속 하나님을 잊었다. 십계명을 받고도 말이다. 얼마나 치욕스러운 백성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엄청나게 많은 벌을 받고 조금 나아져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리고 십계명은 그대로 이어졌으며 지금까지 사람들이 많이 지켜오고 있다.

십계명의 가치는 아직도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큰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회개한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맨날 죄를 짓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성령과 그리고 새로운 계명을 주셨다. “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셨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별로 실천하지도 않고 있다. 아무도...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탐심을 가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다. 그런데 탐심이 없으면 앞에 있는 흠치는 마음, 살인하는 마음, 폭행하는 마음, 우상을 숭배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계명은 매우 지키기 어렵고 중요하다. 그리고 또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생각하라는 말씀은 내가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보라는 것 같다. 나는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우리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같은 처지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러면 안 되지. 더 열심히 전도하여 하나님을 알리자!

여기까지가 내가 전도사님과 함께 배우고 생각해 본 제자반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것은 매주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지막 날에 명동 다이소에 간 것이다. 즐거운 시간이었다. **Y**

기대하며 소망하며



안태연 집사

어느덧 40대 중반이 되어 문득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답답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의 근원이 되자고 약속하고 결혼한 귀한 남편과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의견충돌이 생겼습니

다. 하나님의 선물로 확신하며 귀하게 여겼던 아들을 봐도 '언제 키워서 장가보내나' 하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마저 남들 쉬는 날 일찍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 버겁고 웬지 손해 보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것들 투성인데도 그저 짐스럽게 느껴지고 그날이 그날 같은 무미건조한 날을 보내자니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견디기 힘들다고 생각하던 때 미뤄오던 예비지도자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삶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낯설고 어색한 훈련의 자리에 나가 집사님들과 함께 책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훈련받은 염미경, 오승희, 김경아, 김은아, 김분경 집사님을 통해 우리 각자의 연합함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만 삶이 힘든 게 아니라 각자가 지고 있는 짐들이 있다는 것을 보았고 모두 그것을 위해 신앙 안에서 고군분투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겸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연합함은 좌절할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선물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순간순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대화를 나누고 중보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묶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다 이해가

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우리들을 마치 어린양을 대하듯이 대해주셨습니다. 생활의 부분 부분들에서 신앙의 왜곡된 구석구석을 다림질 하듯 펴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왜곡된 신앙으로 왜곡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많이 안타까우신 것 같았습니다. 덕분에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의 자세를 조금이나마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짧고도 길었던 시간을 보내면서 처음 시작했을 때와 지금의 모습이 같으면서도 많이 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언제나 내 곁에 계시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땐 성큼 다가와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시는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알았으니 앞으로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 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 보겠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품에 안겨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입니다.

이제 삶을 사는 여유가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앞날을 헤쳐나가다 보면 그 인생의 끝에서 반갑게 나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지요.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Y



성경을 배우는 기쁨



윤은경 교사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칠 돌에 부딪쳤느니라.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9장 32~33절 말씀이다. 대대로 율법을 따라 살아오며 그것을 의로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라는 새 의가 나타났다. 율법 없이 살아오던 이방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일이 유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쉬웠을지 몰라도 율법 안에서 살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파격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로마서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여호와라고 말하고 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만이 의롭다 생각하던 유대인들은 그를 믿으면 의롭다 칭해준다는 예수라는 ‘부딪칠 돌’에 필연적으로 부딪치게 되는 것이다.

오래 전부터 성경공부를 하고 싶었다. 그런데 별로 기회가 없었다. 성경을 읽다가 막힐 때나 앞 뒤 문맥이 이해가 안될 때, 왜 그 구절에 그 단어가 쓰였는지 등등 궁금한 것이 생길 때마다 혼자서 주석성경도 찾아보고 주변의 교역자님들께 물어보기도 했었다. 어떻게든 성경공부가 하고 싶어 집 근처 교회를 기웃거리기도 했었지만 구체적인 성경공부를 하고 싶다는 갈증이 늘 있었다.

그러던 중 좋은 기회가 생겼다. 2017년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봄 가을학기 토요일 제자훈련에 데려온 학부모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바이블 아카데미가 생겼다. 거기에서 로마서와 다시 만났다.

성경공부의 장점 중 하나는 성경의 핵심을 만나는데 있다. 이 성경이 정말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의 저자가 당시에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쓴 것인지, 그리고 아주 오래 전에 쓰여진 성경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알게 되는 유익이 있다.

앞서 말한 로마서 9장 32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라는 돌에 부딪혔다고 바울은 말한다. 율법 지키는 것이 의로움이었던 유대인들에게 그 돌은 걸림돌이었지만 반드시 만나야 하는 돌이다. 그 돌에 부딪쳐야만 하는 것이다. 관습과 자아가 깨어지는 강도 높은 아픔이 있겠지만 그것이 은혜인 것이다. 편안히 내버려두는 것이 은혜가 아닌 것이다.

로마서를 공부하며 새롭게 알게 되는 모든 것이 좋았지만 너희가 부딪칠 돌에 부딪쳤다는 말씀이 참 좋았다. 지금 사는 방식이 나쁘지 않고 신앙생활도 그럭저럭 잘하고 있는 듯 보여도 우리는 예수라는 돌에 늘 부딪쳐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매너리즘을 점점 하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바이블 아카데미에 참석하기로 한 것은 아주 잘 한 결정이었다. 금쪽 같은 토요일 오전을 상당기간 할애했지만 비교할 수 없는 유익이 있었다. 홍보가 덜 된 탓에 인원이 너무 적었음에도 로마서와 계시록 특강까지 끝까지 열강으로 달려주신 서우진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8년에도 바이블 아카데미는 계속된다 하니 좀 더 많은 성도들이 그 시간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모일 수 있기를 바란다. 토요일 오전의 휴식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넘치는 은혜가 분명히 있으니. Y

하반기 자립화대상교회 방문 (새생명교회, 연곡소망교회, 동춘교회)



염미경 집사

담임목사님께서 선교는 헌금만으로 다 한 것이 아니라, 가서 만나고, 마음을 나누고, 기도제목을 함께 나누고, 교회를 보고, 사역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면,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선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담임목사님과 선교위원장 장지우장로님, 그리고 남녀선교회 임원과 회원들이 10월 27일 서울북노회에 속한 포천지역 선교후원교회 세곳을 방문 하였습니다.



새생명교회

첫 번째, 황인호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새생명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상가 2층에 자리 잡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어른과 아이를 합쳐서 약 30명이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유교가 강한 지역이라 전도하기가 어렵고 또한 이단이 강한 포천 지역이라 아픔과 상처를 많이 받는 곳이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새생명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되어, 한 명이라도 바르게 서서 영혼 구원이 되도록 끊임

없이 기도를 하고 계신답니다. 전도를 위해 사모님은 성신여대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포천지역 가정어린이집 대표로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생명의 씨앗을 심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 성전부지 마련을 위해, 교회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기도 제목으로 나누었습니다. 담임목사님께서서는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가 하늘 평안을 맛보는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선포하셨습니다.



연곡소망교회

두 번째, 박봉재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연곡소망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예쁜 커튼과 나무의자로 아름답게 꾸며진 교회였습니다. 성도는 약 68명이지만 60세 이상이 90%나 된다고 하였습니다.

“한 생명을 품는 일,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라는 표어를 가지고 지역복음화를 위해 세겉줄 새벽부흥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세겉줄이 궁금하여 여쭙보았더니 두겉줄은 끊어질 수 있어도 세겉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것을 착안하여 세 명이서 전도대상자를 품고 기도한다고 하였습니다.

교회 게시판에는 손수 마을을 그려 각 가정 마다

교회 다니는 가정 교회 안 다니는 가정 표시를 해놓고 전도에 힘을 쓰고 계셨습니다.

또한 교회진입로 확보와 딸 건강 회복과 사위 진로 결정을 위해 기도제목을 나누었습니다.

담임목사님께서 한 가정 한 가정 다 섬기는 교회가 지역에 참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선포하셨습니다.



동촌교회

세 번째, 공영광목사님이 사역하시는 **동촌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성도가 약 50명이고 가족 같은 분위기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사모님의 맑은 찬양소리가 교회에 널리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목사님은 두 번의 암 수술 후, 2012년부터 외적성장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성장이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목사님 먼저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술선수범하여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는 성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사는 성도가 되는 것을 기도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매달 성령의 열

매중 하나의 달로 정하여 실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10월은 성령의 열매 중 온유의 달로 정해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되기를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담임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교회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선포하셨습니다.

교회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꼭 있을 만한 곳에 하나님 성전이 있고, 그곳에 계시는 목사님들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성전을 지키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두 눈을 감고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라는 말씀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Y**



어떤 크리스마스 영화를 볼 것인가?



강진구(안수집사,
영화평론가)

진짜 크리스마스 영화 구별하기

할리우드의 상업적인 영화의 속성은 장르(genre)란 개념을 탄생시켰다. 장르란 형식이나 내용, 소재나 인물 등에 따라서 비슷한 영화들을 묶는 일종의 영화분류법이다. 흔히 말하는 전쟁영화나 서부영화, 혹은 멜로드라마나 공포영화라

부르는 것들은 할리우드의 전통적인 장르에 따라 분류된 것들이다.

할리우드에서 탄생한 장르 가운데는 크리스마스 영화가 있다. 크리스마스 시즌은 여름방학 다음 가는 극장의 성수기인 동시에 크리스마스를 소재로 한 독특한 영화를 개봉하는 절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영화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제작되다 보니 크리스마스의 성경적 의미와는 상관없는 영화들도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 할리우드가 만든 크리스마스 영화들을 되짚어 보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할 만한 크리스마스 영화를 소개해 본다.

세 종류의 크리스마스 영화

첫째는 ‘성서적인 크리스마스 영화’가 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탄생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2천 년 전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캐서린 하드워 감독의 <네티비티 스토리-위대한 탄생>(2006)은 최고의 크리스마스 영화다. 세실 드 밀 감독의 <예수 그리스도>(1927)나 프랑코 제퍼넬리 감독의 <나사렛 예수>(1976)와 같이 예수의 삶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영화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영화 전체가 예수의 탄생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다.

<네티비티 스토리-위대한 탄생>은 2017년 12월에 한국에서 <위대한 탄생>이란 제목으로 재개봉했다.

<위대한 탄생>은 누가복음을 기초로 성경에 글자로 기록된 예수탄생의 이야기를 영상화한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안다고 생각하는 예수탄생 이야기를 다루었지만, 그 느낌은 새롭다.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그 시대의 마을 정경과 로마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서가 잘 드러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과연 어떤 상태 어떤 곳에서 태어나셨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 영화의 큰 장점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성경 교육 교재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위대한 탄생>은 세 가지의 이야기를 엮어서 생생한 성경의 감동을 전제시킨다. 하나는 요셉과 마리아를 중심으로 천사의 예언과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사실에서 오는 인간적인 갈등과 그것을 이겨내는 믿음을 보여준다. 둘째는 헤롯왕의 권력욕과 여우같은 교묘함 그리고 잔인함을 부각시킨다. 유대인에게 회자되는 메시아 탄생의 예언이 실현된다면 자신의 왕권이 상실될까 두려워 두 살 미만의 영아들을 모두 살육하라고 지시하는 잔인성이 얼굴 가득 배어있다.

셋째는 세 명의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별을 따라 가는 여정이 앞의 두 이야기를 엮어내며 흥미롭게 전개된다. 진지하고 경건하기만 할 것 같은 이야기에 볼거리와 즐거움을 주는 인물은 역시 동방박사들이다. 그들의 이국적인 외모와 복장 그리고 코믹한 말투는 예수탄생 이야기를 대중화 시키는데 결정적 공헌을 하고 있다. <네 번째 동방박사>(1985)는 바로 대중성을 지향하며 제작된 크리스마스 영화라 할 수 있다.

둘째는 ‘문화적인 크리스마스 영화’로서 가장 기독교

교 대중의 지지를 받는 크리스마스용 영화로 우리에게 익숙하다. 오락성과 더불어 성탄절에 새겨 들을 법한 메시지를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34번가의 기적>(1947, 1994)과 같이 산타클로스 자체를 부각시키지 않으면서도 성탄의 의미를 간접적으로 전하거나,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훈훈한 실화를 담은 영화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1983년 트레버 페럴이란 11살짜리 꼬마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벌인 불우이웃 돕기 캠페인이 소재가 된 영화 <크리스마스의 거리 Christmas On Division Street> 또한 잘 알려진 크리스마스 영화이다.

가장 최근에 개봉한 이 장르의 영화에는 <신은 죽지 않았다>의 감독으로 널리 알려진 해롤드 크롱크의 2013년 작 <실버벨>(Silver Bells)이 있다. 지방 TV방송국에서 스포츠뉴스 앵커인 브루스 달트(브루스 박스라이트너)의 생활관은 '이겨야 산다!' (For the win!). 아들 제이슨(켄턴 듀티)의 농구시합을 응원하던 중 심판의 오심에 격분한 그는 그만 심판을 폭행하는 바람에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 구세군의 자선냄비 모금함에서 종을 듣게 된다. 인생관의 변화가 시작되는 점이다.

전형적인 미국식 가족 코미디 영화의 구조 위에 형성된 이야기 위에 크리스마스 자선냄비와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구세군의 헌신적인 봉사 장면을 엮었지만, 제일 위에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음을 놓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마치 멋지고 맛있는 크리스마스용 3단 케이크의 모양을 떠오르게 한다.

세상이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단골 영화

셋째는 '크리스마스 시즌 영화'로 분류되는 극히



상업적인 오락물들이다. 엄격히 말하자면 크리스마스의 본래 의미와는 상관없이 크리스마스 절기에 벌어지는 해프닝을 주로 다루고 있다. <나 홀로 집에>(1990)에서부터 <러브 액츄얼리>(2003) 까지 흔히 성탄절과 연말이라는 계절의 특별한 감성을 담은 절기용 영화라 할 수 있다.

언뜻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전하는 영화를 찾기란 쉽지 않다. 서구 문화권에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인들만의 절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명절(Holiday)인 까닭에 성경의 정체성을 대중매체에 담아내기에는 제작업자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세상 어디에도 영화만큼 크리스마스에 대한 꿈을 심어주는 매체도 없다.

영화 속 크리스마스가 성경의 역사적 사실로부터 벗어나 현실도피적인 몽상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바라보는 비전이 되게 하는 것은 오로지 영화의 선택과 지혜로운 적용에 달려있다. 메리 크리스마스! Y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김혜림 집사
(소망교회)

이천년 전 베들레헴,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며,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눅2:10-11) 라고 선포했습니다. 33년의 짧은 생을 살기 위

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베들레헴에서 천사가 전했던 소식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 성탄절마다 기쁜 맘으로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성탄절에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을 꼽으라면 역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일 것입니다. 오늘 날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이 곡은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 근처 오벤도르프에 있는 성 니콜라스 교회의 요셉 모어 신부가 만든 것입니다. 그는 이 마을에 부임해 가끔 한적한 언덕에 올라 조용히 묵상 하곤 했는데 이 찬송 시도 그런 묵상 중에 영감을 받아서 쓰게 되었습니다.

모어 신부는 1818년, 크리스마스 전날, 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탄예배에 가장 필요한 오르간이 고장 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장 난 오르간 덕분에 이 찬송이 세계적으로 애창되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되었습니다. 모어 신부는 예수님 탄생의 신비함을 그린 찬송시를 쓰고 이것을 그의 친구이자 교회 오르가니스트인 프란츠 그루버에게 작곡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르간이 고장 났기 때문에 이 둘은 곡이 만들어지면 기타 반주에 맞춰 함께 부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1818년 12월 24

일, 새로 만들어진 크리스마스 캐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곡이 산골교회에서 기타반주로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작곡가는 기타를 치고 작시자와 소년 합창단은 손에 촛불을 든 채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인 1825년, 고장 난 오르간을 수리하기 위하여 오르간 제작자인 칼 마우락허가 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악보를 발견하게 되었고, 곡이 너무 마음에 든 그는 이 악보를 사보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곡을 ‘스트라서’ 어린이 합창단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이 캐럴을 불렀고 덕분에 이 찬송이 유럽 전역에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찬송은 미국의 저명한 찬송가 학자 존 영 주교가 번역하여 1863년 ‘주일학교 노래책’에 처음 발표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895년 발행한 ‘찬미가’ 15장에 처음으로 번역되었고, 1931년 ‘신정찬송가’ 38장에서 현재 번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르간이 망가지지 않았다면, 오르간 제작자인 마우락허가 교회에 오지 않았다면, 이 아름다운 찬송은 그냥 작은 산골 마을에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아름다운 찬송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디 성탄절마다 이 귀한 찬송으로 큰 기쁨 누리시길 바랍니다. **Y**

*김혜림 집사님은 소망교회에서
영어성가대를 지휘하면서
토요일 5시에 방송되는 기독교방송 라디오의
찬송교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가을특별새벽기도회 9월11일(월)~16일(토)

- “영혼의 성벽을 보수하라”(느4:6)

11일(월)	12일(화)	13일(수)	14일(목)	15일(금)	16일(토)
느1:1-5	느3:1-4	느3:23-27	느4:1-6	느4:7-14	느4:16-23
금식하며 기도하여	함께 보수 하는 성벽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비웃음과 방해 앞에서	크고 두려우 신 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례 · 입교식 9월 24일(주) 3부 예배시

- 세례 : 민민호 박민서 박선이 박지연 박하람 유인숙
이경선 이명숙 이지영 정재윤 최다희 최민석
황인무
- 입교 : 강병찬 김해린 남윤수 신예은 안성훈 양하은
윤현식 이강진 이승빈 한병헌

교단 102회 총회 18일(월)~21일(목) 온누리교회 양재성전

성찬식 10월 1일(주) 1~3부, 젊은이, 고등부 예배 시

추수감사주일 10월 15일(주)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 2~3부 예배 시

추수감사절 찬양한마당 찬양예배 시

제 8기 영암부도교육 10월 25일~11월 8일(수, 3주)

- 강사: 성나미권사(한국 기도하는 엄마들 총괄총무, 전국강사)

자립화대상교회방문 10월 27일(금)

- 서울북노회 포천지역(새생명교회, 연곡소망교회, 동촌교회) 방문

2017 사경회 11월 8일(수)~10일(금), 임영수목사(모세골공동체)

일자	시간	말씀	제목
8일(수)	저녁	막 4:1-12	씨 뿌리는 사람 비유
9일(목)	새벽	시 1:1-6	늘 푸른 신앙
	저녁	시 23:1-6	선한 목자
10일(금)	새벽	시 31:9-15	나의 날이 주님의 손에
	저녁	막 10:42-45	섬김의 도

창립63주년 임직예식 11월 5일(주) 찬양예배 시

- 장로 임직: 장지철 강응수 조규완
- 집사 임직: 박성열 기노창 양승배 김진아 이호길 문 한
윤여민 구성욱 김진균
- 권사 임직: 강소영 이금자 김윤희 이홍숙 윤은경 임명자
조혜자 김종숙
- 명예권사 추대: 김용순 김정례 박송자 유순연 윤신숙
전재순 주필순 최학웅 최희숙 김종숙

교회창립63주년기념주일 11월 12일(주)

- 전 교인출석주일 찬양예배 시

신앙강좌 11월 19일(주) 찬양예배 시

- “종교개혁의 정신” 강사 : 박경수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역사신학)

영 · 유아 · 유치부 강북협의회 종합발표회 결과

그리기부문: 최상은(유치부, 대상)

다음세대(수험생, 취업준비생)를 위한 기도회 11월 23일(목)

성탄절등식 11월 29일(수)

2017 대림절 모든세대가 함께하는 One-Point 통합교제

12월 3~24일(4주간)

2017 대림절 밀알헌금 ‘두 손에는 주를 담은 섬김이’ 12월 3~17일(3주간)

- 밀알1(1만원): 연탄 20장 밀알2(3만원): 안암 · 보문동 사랑박스
- 밀알3(5만원): 섬지역교회 성경보내기

일대일양육 수료식, 예비지도자반 수료식 12월 3일(주) 찬양예배 시

항존직은퇴예식 12월 10일(주) 찬양예배 시

- 시무장로 은퇴: 신운해 문정엽 임봉환
- 시무안수집사 은퇴: 김성규 하재홍
- 시무권사 은퇴: 정근희 음해숙 마정조 강춘예 신영옥
박영애 박경화 김의예 이영숙

교육부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

- 유치부 12월 8일(금)~9일(토) 에버랜드
- 초등1부 1월 27일(토)~28일(주) 교회
- 초등2부 2월 3일(토)~4일(주) 교회
- 중등부 1월 28일(주)~30일(화) 교회
- 고등부 1월 26일(금)~28일(주) 교회
- 청년공동체 1월 18일(목)~20일(토) 교회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최명규
(1남 종암)



이진우
(여호수아 안암9)



유금용
(에스더 장위)



김황태
(6남 종로중구)



김민정
(7여 대광)



최성균
(2남 목동)



장원석
(6남 목동)



오병욱
(6남 은평)



김은미
(7여 동소문)



권성애
(7여 정릉2)



김금자
(1여 동소문)



박명자
(유니게 안암6)



김차임
(1여 종암)



채현주
(5남 상계1)



송영인
(한나 보문3)



136-073 서울 성북구 안암로 7길 66 영암교회

TEL. 924-6798 FAX. 927-9009

Young-Ahm Presbyterian Church

66, Anam-ro 7-gil, Seongbuk-gu, Seoul, KOREA

<http://www.youngahm.or.kr>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암교회

